

# 가스공, 러 가스포럼과 北 경유 가스관 건설 추진

## 文 대통령, 러시아 방문 후 재검토 '비핵화·대북제재 해제' 전제조건

한국과 러시아가 잠시 추진이 중단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북한 경유 가스관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러시아와 북한, 한국까지 이어지는 파이프 라인을 의미한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미하일 본다렌코는 최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프로젝트 논의를 재개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다렌코는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스관 사업(논의)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프로젝트지만 지난 6월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11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가운데)이 기업인들과의 회동 모임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 이후 다시 이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가 한동안 중단됐던 프로젝트로 돌아가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사업 주체인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부

사장도 동방경제포럼에서 "앞질러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측과 가스관 프로젝트 관련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고 전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부사장은 "한

국, 북한 동료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단계인 투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타당성 검토를 위해선 모든 상업적·경제적 과제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시간 뒤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 단계에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스프롬의 다른 부사장 비탈리 마르켈로프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가스프롬이 한국가스공사(KOGAS) 측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비탈리 마르켈로프 부사장은 "최근 들어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으며 한국 측이 가스프롬에 해당 프로젝트(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재개에 대해 문의해왔다"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협상이 열렸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국제 대북 제

재 해제 등이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전진의 전제조건"이라며 "우리가 해당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이 전제조건들이 이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북한 경유 가스관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에서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고 한국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 2011년부터 관련국 간에 본격적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북핵 문제 악화로 협상이 중단됐다.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천연가스 수출 국가를 넓히게 된다. 또 세계 3위 LNG 수입국인 한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도 수입하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의 수입 구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KAI, 방산업체 최초 ISO 부패방지시스템 인증

## 이사회·감사위 경영 견제 강화 등 불합리 규정 개정 '윤리경영' 성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1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획득했다.

ISO는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 표준의 전략수립, 법규 준수, 리더십, 평가제도, 개선 활동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ISO 37001 인증을 발급한다.

KAI는 2017년 10월 김조원 사장 취임과 함께 기업의 가치를 윤리경영에 두고 윤리경영 선포식과 독립적인 윤리경영 전담본부 신설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 시스템에 의한 윤리경영



김조원 KAI 사장(왼쪽)과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사무소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은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조원 KAI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경영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한층 강화하고 국제표준의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에 의한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가

항공우주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KAI는 윤리경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공공기관 5곳 신입 채용

IBK기업은행 등 14~17일 접수 마감

올해 공공기관 채용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이 줄어지고 있다.

12일 사람인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항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오는 14일~17일 마감한다.

IBK기업은행은 일반(금융영업), 디지털 분야에서 총 210명을 채용한다. 일반 분야 채용인원 중 일부는 지역할당제를 적용한다. 응시자격에 학력, 전공 및 연령 제한은 없다. 서류전형 후 필기시험, 역량 면접, 임원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지원은 오는 14일까지다.

기술보증기금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전산, 채권관리 부문에서 총 11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학력,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일부 전형 지원자에 한해 최저기준 이상 공인어학점수를 보유해야 한다. 서류심사 후 필기전형과 2차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14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한국항공공사는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5급급 전형)을 모집한다. 법률, 경영, 회계, 기계, 전기, 통신전자 등의 일반 전형에서 73명을 모집하며, 장애인 전형 및 보존자 전형도 실시한다. 지원에는

공공기관	채용 인원	접수 마감
IBK기업은행	2018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08.31 ~ 09.14
기술보증기금	2018 기술보증기금 신입직원 채용	08.31 ~ 09.14
한국항공공사	2018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09.07 ~ 09.17
예금보험공사	2018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09.03 ~ 09.17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2018년 채용	09.10 ~ 09.17

학력(전공),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지정 어학시험 한 종목을 지정점수 이상 소지해야 한다. 서류전형 후 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로 이루어진 필기전형과 2차례 면접을 통해 최종 임용된다.

예금보험공사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도 17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일반, 금융통계, 회수조사, IT, 해외인재 분야와 함께 고졸 채용도 진행될 예정이다. 학력, 연령, 전공 제한이 없으나, 금융통계 분야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여야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 후 필기전형, 1차면접, 2차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17일까지 채용형 인턴과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한용수 기자 hys@

# aT "中 2030 잡아라"... SNS 마케팅 인기

광저우 인터넷스타 '왕홍' 연계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중국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20~30대에게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중국 광저우 지역의 유명 인터넷스타 '왕홍'과 연계한 모바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왕홍은 '왕위홍'의 줄임말로 중국 웨이보·웨이신 등에서 활동하며 많은 팬을 보유한 인터넷 스타를 말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생활로 자리 잡은 중국 빠링허우(80后) 및 지우링허우(90后) 세대의 생활 및 구매 패턴을 착안해 aT는 중국 왕홍이 한국 농식품 생산현장을 방문해 생산·제조과정을 직접 소개하고, 중국내 유통매장에서 한국식품 시음·시식 장면을 실시간으로 팔로워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왕홍이 방문한 한국 농식품 현장은 유제품, 포도, 김치, 장류농장과 생산공장 등이며 이즈보(直播)라는 SNS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됐다.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왕홍인 니콜(Nicole)과 샤오청즈텐텐텐은 팔로워수가 각각 322만명과 242만명에 달하는 인기 BJ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한국식품의 현장 소개는 물론 한국음식 요리 시연과 네티즌과 즉석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회당 평균 약 2천만 명, 8회 동안 누적 기준 약 1억6천만 명이 시청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중국은 휴대폰 보급과 간편결제방식 및 O2O 매장 등 확대로 식품유통 분야에서 모바일 마케팅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중국의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왕홍을 활용한 홍보 및 O2O매장 연계 판촉 등을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1인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확대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33%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해돋이 06:12 | 해질 18:44

## 오늘의 날씨

9월 13일 (목)

음력 : 8월 4일

29 ~ 19°C

수도권 날씨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